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2008 제14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777 2013, 757 7851 FAX 02 778 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8. 5. 6 발행인 : 한홍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3주기 추모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



▲ 교황 요한바오로 2세 3주기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하는 정진석 추기경

순,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지난 4월 1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지난 2005년 4월 2일 선종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3주기 추모제를 갖고, 돌아가신 교황님을 생각하며 교황님께서 하루빨리 성인품에 오르기를 기도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해 박정훈, 이관진, 여규태 전 한국평협 회장, 루이 크루즈 주한 필리핀 대사, 이갈 카스피 주한 이스라엘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해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교황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싣는 순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한국평협 회원 단체
-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 한국가톨릭 경제인회
-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 성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 동정
- ◎ 교황님의 가르침

정 추기경은 추모사를 통해 “한국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교황님의 두 차례의 방한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교황님께서 생존에 강조하시던 생명과 평화, 인권 등을 위해 힘써 일하며 그분 뜻에 따라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도 교황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이 대신 읽은 추모사를 통해 “교황님은 ‘찬미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인사말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매번 큰 기쁨을 안겨주셨다”라고 회고하면서 우리가 더욱 교황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기도해 주시기를 청했다.

교황대사 대리 스테파노 데 파울리스 몬시뇰



▲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사를 대리낭독하는 한홍순 회장



▲ 교황 요한 바오로2세 3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내외빈

도 “그리스도께로 ‘일어나 갑시다!’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온 인류에게 강조하신 교황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교황님께서 깊이 맛보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함께 맛보면서 그 분의 가르침을 살아가야 한다”고 추모의 말씀을 나누었다. 대한 성공회 서울교구장인 박경조 주교 역시 과거 교회일치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교황님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사상과 제도에 맞서 싸웠던 교황은 종파를 초월해 온 인류가 존경하고 따랐던 지도자였다”며 “교황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서 기도 해주실 것”이라고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이어서 ‘대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성인 반열에!’라는 부제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평신도를 위해 말씀하신 2000년 평신도 대회년 강론을 듣는 시간을 갖고, 생전에 교황님께서 관심을 갖고 강조하셨던 사회문제들을 묵상하며 빛의 신비로 묵주기도를 바쳤다.

묵주기도의 각 단의 지향은 온 세계를 상징하는 다섯 나라 말로 낭독했는데 △1단(한국어) 생활양식을 바꿔 환경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2단(이태리어) 어린이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3단(타갈로그어) 생명권을 수호해야 한다. △4단(스페인어) 생명공학은 윤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5단(영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의 사회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등의 내용의 묵상으로 기도한 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침으로써 추모제를 마쳤다.

한국평협 조직개편 확정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2월 16일 총회를 통해 재임된 한홍순 회장에게 위임되었던 회장단과 상임단체의 구성, 분과위원회 개편에 대한 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

▲부회장: 이해도(대구평단협 회장), 정기수(광주평협 회장), 권경수(서울평협 부회장), 김지영(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 이윤식(한국ME 대표) ▲감사: 최중우(인천평협 회장), 강신근(마산평협 회장) ▲사무총장: 강용대(서울평협 사무총장) ▲상임단체: 서울 세나뚜스, 광주 세나뚜스, 대구 세나뚜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한국ME,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마리아사업회(여), 한국가톨릭경제인회, 한국가톨릭교수회, 한국지속적인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 ▲위원회 위원장: △기획위원회/박순석, △선교위원회/김길성, △교육위원회/권길중, △홍보위원회/유연재, △문화위원회/임영숙, △노년위원회/최종계, △가정위원회/오현희, △청소년위원회/천인욱, △여성위원회/박문자, △사회적관심위원회/김어상, △도농·환경위원회/이광호, △민족화해위원회/유호열, △국제협력위원회/이정희

신임 사무총장에 강용대씨 임명



▲ 신임 강용대 사무총장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홍순 회장은 신임 사무총장에 강용대(61, 미카엘, 서울대교구 청담동성당)씨를 임명했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강 사무총장은 문화예술기획과 부동산기획·관리업체인 '혜원

기획'의 대표로 서울대교구 청담동성당의 사목회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현재는 청담동성당 ME대표부부와 레지오 마리애 서울세나뚜스의 국제서기를 맡고 있다. 강 사무총장은 서울평협의 사무총장도 함께 맡게 된다.

현재 평협 사무국에는 강용대(미카엘) 사무총장, 유영훈(스테파노) 사무국장과 함께 신동수(세라피나), 계희율(마리아) 자매가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평협 조직개편 완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지난 1월 19일 총회를 통해 재임된 한홍순 회장에게 위임되었던 회장단 선임과 분과위원회 개편, 상임위원회에 위임되었던 감사 1인 추가 선임에 대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

▲ 부회장: 권경수, 손병선, 이기연, 이무하, 이윤자, 조남진, 최홍준, 한계희 ▲감사: 박무송, 이인석 ▲사무총장: 강용대 ▲상임단체: 가톨릭 노동장년회, 가톨릭 사진가회, 가톨릭 약사회, 가톨릭 언론인회, 가톨릭 운전기사사회, 가톨릭 의사회, 가톨릭 중등교육자회, 마리아사업회(남), 레지오 마리애 서울 세나뚜스, 서울ME, 성령쇄신봉사회, 성 빙첸시오 아바오로회, 연령회연합회 ▲위원회 위원장: △단체특별위원회/김남영, △지구특별위원회/최원규, △기획위원회/박순석, △선교위원회/김길성, △교육위원회/권길중, △문화위원회/

임영숙, △홍보위원회/유연채, △가정위원회/
오현희, △사회적관심위원회/조은상, △도
농·생명·환경위원회/이광호, △민족화해위
원회/유호열, △여성위원회/우선희, △노년위
원회/최종계, △청년·청소년위원회/천인욱,
△국제협력위원회/이정희

1, 2차 선교포럼 ‘행복한 선교 리더십’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3월 8일과 4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본당 선교분과위원장과 위원 등을 대상으로 ‘행복한 선교리더십’을 주제로 선교포럼을 마련했다.

각각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이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인 조은상 박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개발함으로써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 긍정적 자아 이미지 개발 △ 희망의 길, 믿음의 길 △ 나의 신앙의 역사 돌아보기 등을 통한 강의와 함께 참가자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선교포럼은 7월까지 5회에 걸쳐 선교활동의 리더양성을 목표로 하여 시리즈로 진행된다. 서울평협은 교구 역점 사업인 ‘복음화

2020 운동 달성을 위한 선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선교포럼을 열어왔다.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1학기 개강

6월 10일까지 총 15주간



▲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김성태 신부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3월 4일 지난해에 이어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1학기를 개강했다. 공의회과정은 세계 교회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65년)의 의미와 역사, 배경을 살펴보고 문헌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1, 2학기 총 30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마련된다. 10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3월 4일 보편공의회의 의미와 역사(김성태 신부), 3월 11일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역사와 의의(김성태 신부), 3월 16일과 25일 계시현장(조규만 주교), 4월 1일과 8일 교회현장(김영국 신부), 4월 15일과 29일은 전례현장(윤종국 신부), 4월 22일은 사목현장(민병덕 신부) 강의가 있었다.

한편 서울평협은 지난해 공의회과정의 강의록을 수정 보완하여 책으로 엮어 발간할 예정이다. 발간된 책은 앞으로 공의회과정 교재로



▲ 선교포럼 강의장면

쓰이며 일반인에게도 판매된다.

가정세미나 개최

‘가족 간의 갈등과 영성심리 상담’ 주제로



▲ 가정세미나에서 주제강의를 하는 홍성남 신부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가족 간의 갈등과 영성심리 상담’을 주제로 가정세미나를 열었다. ‘영성심리상담과 교회’를 주제로 강의한 홍성남 신부(가좌동 본당)는 본인의 상담 체험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영성심리상담의 첫 걸음은 상담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며 “자신을 먼저 해결해야 남을 돌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톨릭신자는 자신의 죄를 지나치게 성찰하는 경향이 종종 있다. 흄이 많은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게 갈등해결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치4동·본당 부설 ‘아름다운 가정상담소’ 고병훈 소장은 ‘본당 내 상담소 운영 결과 및 대안’을 주제로 상담소 현황과 실적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현재 본당 부설인 상담소는 11지구 부설로 승격돼 운영될 계획이며, 가정사목과 사회사목의 일환으로 각 지구별로 상담소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교회의 상

담역할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조별토론을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영화보기

서울평협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마련하고 있는 좋은영화보기는 3월 ‘미션’, 4월 ‘간디’를 상영했다. 영화 ‘미션’은 롤랑 조페 감독의 1986년작으로 1750년 식민시기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의 국경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로버트 드니로, 제레미 아이언스가 주연하여 원주민 파라니족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벌이는 선교사들의 모습과 원주민들의 모습을 그린 종교영화이다. ‘간디’는 리처드 아텔버로우 감독의 1982년작으로 비폭력, 무저항의 인도 독립영웅 마하트마 간디의 일생을 다룬 영화이다.

좋은영화보기는 가톨릭회관 5층 508호에서 매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5월 26일에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한 엘 고어의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2006년작)이 상영된다.

〈서울평협 단체소식〉

언론인회 신앙학교 개강



▲ 언론인신앙학교 개강식에서 고준석 신부와 수강생들, 수료생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가톨릭 언론인회에서는 올해부터 서울대교구 매스컴위원회가 주최하게 된 언론인 신앙학교를 주관해 4월 2일 서울대교구 사목회관에서 개강했다. 언론인신앙학교에서는 10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90분간, 신앙에 다시 불을 지피고 교리를 더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에 18기 과정을 맞은 신앙학교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강하며 그동안 알찬 강의내용으로 가톨릭 언론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지금까지 273명이 수료했다.



▲ 6개 대리구 회장, 평단협 회장 등이 상임위원회의 영성지도 문희종 신부)의 2008년도 첫 상임위원회 회의가 3월 15일(토) 오후 4시에 교구청 5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6개 대리구 평협회장과 평단협 회장단, 수원 평협 사무국 임원들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는 총회장 연수와 사목방문 등에 대한 사무국의 업무보고와, 2008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결과 보고 및 차기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또한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태경, 영성지도신부 문희종 복음화국장)와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유영 흥, 영성지도신부 문희종 복음화국장)가 주최하는 제3회 미리내 환경마라톤대회와 관련하여 마라톤 대회 참여 독려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고, 이벤트와 광고협찬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 아울러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아론의 집에서 개최되는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개최에 따른 준비사항들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여성연합회 「희망나누기」 자선 바자 개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는 지난 3월 29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과 희망 나누기 자선바자를 가졌다.

이번 바자는 여성연합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설재활용매장 「사랑마트」개장 기념일에 맞춰 매해 3월 정기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자선바자로 수익금은 여성쉼터 막달레나의 집, HIV/AIDS 환우시설, 장애우 가정, 조손가정, 성전 보수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특별히 2008년에는 10월 26~31일까지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는 여성연합회 주관 아·태 지역 총회(회장 오덕주)에서 아·태 지역의 가장 가난하고 절박한 나라를 선정하여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8년 1차 상임위원회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태경,

환경사랑 달림이 축제, 제3회 미리내 환경마라톤대회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3회 미리내 환경마라톤대회가 4월 27일(주일) 미리내 성지에서 열렸다.

정태경 마티아 평협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 날 대회에 5km 종목에 출전하여 건강을 과시하기도 한 이용훈 총대리 주교는 참가자들에게 “마라톤을 통해 끝까지 삶을 완주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고, 내빈으로 참석한 제종길 의원은 축사에서 “환경마라톤이므로 성지와 주변의 환경이 보존되도록 달리며 염원해 달라”고 말했다.

5km, 10km, 하프 등의 세 종목에 서울, 의정부, 대전, 제주교구 등 전국 각 교구에서 3천여 명의 신자와 일반 참가자들이 개인 뿐 아니라 단체와 가족단위로 함께해 경쟁보다는 화합을 즐기는 분위기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이민의 날을 맞아 교구 엠마우스 소속 외국인 50여 명이 대회참가 뿐 아니라 노래와 춤 등의 장기를 선보였으며, 지체장애인선교회 회원이 출전해 분위기를 고조시켜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대회 후에는 주최 측에서 마련한 점심식사와 안성지역에서 생산한 맛있는 오이가 제공되고, 다채로운 공연이 열려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나눴으며, 103위 성전에서 이용훈 마티아 총

대리 주교의 주례로 사제단 공동 집전 미사가 봉헌되었다. 이민의 날을 맞이하여 제2독서와 복음이 영어로 봉독되었으며, 마라톤에 참가한 엠마우스 소속 외국인들이 예물을 봉헌하고 특송을 선사해 더욱 의미 있는 미사가 되었다.

이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문화와 언어를 떠나 이분들에게 교회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휠체어로 달리며 우리와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준 분들께도 감사한다”며 마라톤대회를 주관한 이들과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미리내 환경마라톤은 해를 거듭할수록 종교와 연령, 국적을 뛰어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상자 명단>

▲ Half : 1위 김기채 · 오분희, 2위 이택우 · 박선희, 3위 윤현철 · 현유리 ▲ 10Km : 1위 서해섭 · 김봉의, 2위 노무학 · 이정원, 3위 이창식 · 정정숙 ▲ 5Km : 1위 박종섭 · 이은주, 2위 김종운 · 이명희, 김낙율 · 신미애 ▲ 최다 단체 참가상 : 평택시 마라톤 연합회(176명)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1년 대구대교구설정 100주년 맞이 제4회 등반대회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해도, 담당사제 김율석 신부)는 4월 1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대덕산(앞산)과 대구청소년수련원에서 2011년 대구대교구 설정 100주년 맞이 제4회 등반대회 및 산상음



▲ 3천여 명이 참가한 환경마라톤 대회 출발 모습

악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대구대교구의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제 단체 회원들과 교구 모든 신자가 한 자리에 모여 등반을 통하여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돋독히 하고 대구대교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그리고 교구 복음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조환길 주교를 비롯한 제단체 담당사제와 교구 신자 500여 명이 참가하여 1부 등산에 이어 수련원 실내 대극장에서 가톨릭국악예술연합 회의 난타 공연과 어린이 국악단, 성인 국악단이 공연을 펼침으로써 신자들과 어우러져 신명나는 교회공동체상을 정립하였다.

이날 격려사에서 조환길 주교는 “교회의 주인인 평신도가 다가오는 2011년 대구대교구 설정 100주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 준비 첫 해인 성찰의 해에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복음 선포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 대덕산 정상에서 조환길 주교와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 정기총회에 참석한 부산평협 임원들

박 2일의 일정으로 성 정하상바오로영성관에서 제33차 정기총회 및 본당 회장단 연수를 실시했다. 200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신앙사적지 안내자 교육 건에 대한 안건토의와 제35대 부산평협 회장 선출을 했다. 신임 장춘길 바오로 회장은 (주)동해철강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이며 그 동안 광안성당 평협 회장, 경제인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평협 부회장직을 맡아 왔다. 한편 지난 5년간 부산평협 회장직을 맡아 봉사해온 이정우 마르띠노 전임회장은 퇴임 인사에서 제3대 교구장장례, 4대 교구장 착좌, 교구설정 50주년 각종 기념행사 등의 크나큰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해준 교구민 및 평협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 본당회장단 연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8 정기총회 및 회장단 연수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장춘길, 담당사제 이영복 목사)는 3월 8~9일까지 1

평협 정기총회와 더불어 열린 본당 회장단 연수에서는 제 단체 및 본당 회장단 390명이 참석해 마산교구 오석자 헬레나 자매의 ‘하느님 나라와 소공동체’, ‘교회와 소공동체’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룹토의 및 나누기를 하여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의 실천의지를 다졌다. 오후 4시부터 교구장 황철수 바오로 주교의 집전으로 파견미사를 봉헌했으며 미사 중에 선교, 교리교사, 사랑봉사 활동에 공이 큰 단체와 본당, 개인에게 시상하여 그 공을 치하했다.

▲ 선교상

1. 본당별: △금상/삼계성당, △은상/장유대 청성당, △동상/임호성당, △장려상/밀양성당, 활천성당, 남목성당
2. 개인별: △금상/김정자 글라라(연산) △은상/김종희 베로니카(좌동) △동상/백정희 모니카(당감) △장려상/이상자 아나다시아(중앙), 김미숙 엠마(아미), 양귀업 글로리아(아미), 박영실 데레사(모라성요한), 김명자 제노 베파(민락), 하효정 아네스(좌동), 이순옥 율리 아나(민락)
3. 평신도 교리교사: △20년 이상 봉사/최재석 요한(대양전자정보고) △15년 이상 봉사/노영옥 헬레나(금정), 임동빈 유스티노(금정) △10년 이상 봉사/현문자 글라라(안락), 김동수 알로이시오(대양전자정보고) △5년 이상 봉사/황애순 세실리아(대양전자정보고), 박정숙 류시아(모라성요한), 이권호 베드로(대양전자정보고), 권혁진 미카엘(대양전자정보고), 최영숙 파스칼리나(중앙), 임미옥 아가다(민락), 원종희 글라라(당감), 임충재 요한(좌동)

4. 기관 및 단체: △단체상/남산성당 해외 선교후원회, 금정성당 레지오마리애

5. 소공동체 활동 우수본당: △금상/하단성당 △은상/남창성당 △동상/석포성당 △장려상/토현성당, 염포성당, 반송성당, 교리성당₩

▲ 사랑·봉사상

△단체상(봉사상): 모라성요한성당 성모회, 안락성당 신빈회

△개인상(사랑상): 임영호 시몬(괴정), 이영일 베르나르도(만덕), 박호자 글라라(만덕), 이학종 안드레아(만덕), 김읍전 데레사(만덕), 성종범 토마스아퀴나스(복산), 여상득 가비노(해운대), 문정화 엘리사벳(가톨릭농아인회)

부산교구 성지안내 봉사자학교 개교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부산교회사 연구소(소장 한건 신부)가 공동 주관하는 교구 성지 안내자 양성학교(학교장 한건 신부)가 제1기 교육생을 받고 지난 4월 1일 화요일 가톨릭센터에서 개강미사와 함께 첫 강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순교 사적지 도보 순례를 통해 각 성지에 대한 올바른 역사와 지식을 갖춘 안내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



▲ 교구 성지를 안내할 봉사자 양성 학교 강의 모습

지 안내자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날 입학 미사를 주례한 한진 신부는 강론을 통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도들이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듯 우리 성지 안내자들은 순교자들의 증인이 되어 순교 정신을 전하는 봉사를 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생들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 6주간에 걸쳐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오는 5월 11일 교구 내 성지 순례와 함께 삼랑진 김범우 순교자 묘지에서 졸업 미사를 봉헌하고 봉사자 수료증을 받음으로서 성지 안내자로 파견된다.

회장단, 고문 · 자문,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 교구청 대회의실에서 교구장 황철수 바오로 주교로부터 2008년 부산평협 회장단 이하 고문위원, 자문위원, 상임위원 임명장을 받았다. 황 주교는 격려사를 통하여 봉사자의 참 자세와 정신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로 끝을 맺어야 참 봉사자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임 장춘길 바오로 회장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분께서 쓰시겠다는 계획에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며 평신도들을 모시는 종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고마리 공소 사랑나눔 잔치

주년을 맞는 청주교구 괴산본당 관할 고마리 공소 ‘사랑 나눔 잔치’를 열었다. 한때 본당(1919년)이었다가 1936년 중평으로 본당이 이전하면서 다시 공소가 돼 100년 넘게 신앙의 맥을 이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자 수가 20명 남짓할 정도로 퇴락해가던 공소에서 신자 수가 5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공소사도회는 지난해 10월 공소 살리기 첫 대상으로 충북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867에 자리한 고마리공소(회장 김병길)를 선정, 매주 공소를 찾아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공소 예절을 이끌며 교리교육을 실시해 공소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 같은 공소살리기에 힘입어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받은 4명 중 최화순·이성열씨 등 2명이 5월 4일 괴산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일원이 새로 태어나는 경사를 맞았다.

이날 잔치에는 인근 9개 마을 신자와 현지 주민, 괴산본당 신자들은 물론 본당 관할 목도·세평·칠성공소 신자들이 참석해 모처럼 공소는 물론 마을 전체가 벽적대는 자리가 됐다. 게다가 임각수 아우구스티노 괴산군수와 각계 인사들의 노력과 후원으로 마을길이 포장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청주 평협 단체소식〉

공소사도회 고마리공소 112주년 잔치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소속 단체인 공소사도회(회장 정경해)에서 올해로 설립 112

되는 텁까지 얹어 이날 잔치는 더 흥에 겨웠다. 돼지 2마리를 잡고 국수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교구 가톨릭의사회를 비롯해 청주성모병원 의료진과 혜성약국, 교구 '구세주의 모친' 레지아 소속 간호사 등 200여 명은 의료봉사활동을 벌였고, 충북국악협회는 권수경 골룸바 등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악한마당 잔치를 벌여 신명을 둇웠다. 또 최광조(교구 사목국장)·최상훈(청주성모병원 기획조정실장)·조병환(청주성모병원 원목실장)·김훈일(초중본당 주임)·정용진(괴산본당 주임) 신부 등도 함께해 신자들과 기쁨을 나눴고, 공소사도회원 27명도 함께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박정일주교 금경축 축하행사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사제 유영봉 몬시뇰)는 마산교구 제2대



▲ 박정일 주교 사제서품 50주년 금경축 축하식 장면

교구장을 지낸 박정일 주교의 '사제서품 50주년 금경축행사'를 조촐하게 준비하였다.

지난 3월20일 교구의 모든 사제들이 참석한 성유축성미사 후에 주교좌 양덕성당 성전과

별관 교육관에서 금경축 기념식과 축하연을 준비하여 평신도의 사랑을 전했다.

박정일 주교는 1958년 11월에 사제서품, 1977년에 주교품을 받고, 제주교구장, 전주교구장을 거쳐 1988년 12월부터 제3대 마산교구장으로 마산교구 발전의 길을 열고 2002년 11월에 은퇴를 했다. 은퇴 이후에도 한국주교회의 시성시복위원회 위원장으로 특별한 사목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미꽃목걸이를 여성협의회에서 걸어드리고 교구 단체별로 준비한 영적예물을 교구평협에서 대표하여 전하였으며 마산레지아에서는 교구 레지오 단원들의 영적기도를 모아서 봉헌하고 사제단중창단의 축가와 평신도 대표(손해규 교구평협 수석부회장)의 축사와 박정일 주교님의 답사로 진행하였다.

제2부 축하연에서는 교구사제단과 수도자 평신도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여성연합회 회원들이 밤새워 손수 준비한 한정식으로 50년 사제의 삶에 대한 감사를 드렸으며 축하연에 참석하지 못한 평신도들에게는 특별한 금경축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이날의 행사는 교구평신도들이 박정일 주교의 영육간 건강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한 마음 한 봄으로 기도하는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체험하는 행복한 잔칫날이었다.

아울러 2008년에 사제수품 25주년 은경축을 맞는 허철수 신부, 정홍식 신부, 김순곤 신부, 노영환 신부, 조재영 신부 그리고 부산가톨릭대학교 학장신부 등 6명의 사제들에게도 뜨거운 축하의 꽃다발을 전했다.

교구단체장 연석회의

마산교구 평협은 ‘2008년도 교구 단체장 연석회의’를 지난 4월 18일 마산 M호텔에서 교구장 안명옥 주교와 담당사제 유영봉 몬시뇰, 차광호 미디어국장신부 그리고 강신근 교구평협 회장을 비롯한 43명의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의 행사는 제1부 개회기도, 총회장환영사, 담당사제 인사, 단체장 소개와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제2부 교구단체별 사업 및 현황보고, 제3부 교구장과의 간담회 및 교구장 강평과 마지막으로 제4부 만찬으로 진행됐다.

강신근 회장은 마산교구 발전의 밑거름인 교구의 모든 단체들이 평신도의 사명을 완전하게 실천해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유영봉 담당사제는 매년 교구장과 함께하는 교구단체장 간담회를 통하여 모든 단체들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부탁하였다.

특히 교구단체장들은 단체별 현황보고를 통하여 교구장께 2008년도의 단체별 중요사업과 특성과 교구의 협조사항을 보고하였으며 보다 효율성 있는 단체운영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어진 제3부 안명옥 주교와의 간담회에서는 단체별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여 교구와 사제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는데

안주교는 깊은 관심으로 단체의 특성에 따라 교구의 입장과 사목지침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으로 단체장들을 격려하여 주셨다.

또한 안주교는 강평을 통해 교구의 모든 단체는 교구발전을 이루는 초석으로서 보다 교구 사목에 앞장서고 교구에서도 모든 단체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보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 후 충분한 토의와 연구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앞으로는 신심단체, 사도직 단체, 후원단체, 직능단체별로 세분화된 단체협의회별 연석회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새터민 가정체험의 날

마산교구 평협과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박창균 신부)에서는 마산지구 여성협의회(회장 홍효선)의 도움으로 ‘새터민 가정체험의 날’을 2008년 4월 10~11일까지 1박2일간 교구 내 마산과 창원지역의 교구 신자가정공동체에서 실시하였다.

북한주민들이 여러 가지의 경로를 거쳐 남한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올바르게 배우고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삶을 체험하는 ‘하나원 교육’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 과정 중에 일반국민과 함께 생활을 체험하는 ‘새터민 가정체험의 생활’을 공부하게 되는데 현재 하나원교육원에서 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88명의 북한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터민 가정생활 체험’을 마산교구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어 평신도의 삶을 함께 체험하면서 따듯한 형제애와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 M호텔에서 열린 교구단체장 연석회의

지난 4월 10일 주교좌 양덕동 성당에서 교구장 안명옥 주교와 행사관계자들이 함께 환영식을 열며 한민족의 따듯한 사랑은 시작되었다. 이어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봄소풍이라도 가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마산시내에 위치한 마산박물관과 문신미술관을 견학하여 한국의 문화를 공부하였다.

그리고 마산과 창원 지역의 봉사가정으로 나뉘어 새터민들은 남한의 가정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형제애를 체험하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을 가졌다. 그들과는 종교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생활습관 그리고 사회적 정서가 다르지만 서먹서먹한 처음의 불편은 어느새 한 가족 공동체의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이날의 새터민 체험행사에서는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한국사회에서의 행복한 꿈을 꾸는 북한주민들에게 기대와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은총의 자리가 되었고 우리 스스로도 참 삶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봉사자들은 소박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전해주면서 사랑과 나눔을 체험할 수 있는 하느님의 선물도 함께 전해줄 수가 있었다. 또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하루속히 우리사회에서 쉽게 적응하고 인간적 행복과 참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염원하고 통일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번의 행사에는 마산과 창원에서 77세대의 평신도 가정봉사자가 참여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지구활동〉

지구별 사목협의회 및 제단체 임원 연수회

지구평협에서는 각 본당의 사목협의회 임원과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실시하였다. 특강으로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주제로 김종주 루카(사목국장) 신부가,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라는 주제로 조영대 프란치스코(보성성당 주임) 신부가 맡아 주었다. 이후 분과별 토의와 발표를 통해 각 본당 및 임원 간 정보를 교환하여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위: 여수지구 연수, 아래 : 나주지구 연수회

▷동부지구연수회: 3월08일 / 호남동성당 / 130여 명 참석 ▷여수지구연수회: 3월09일 / 선원동성당 / 60여 명 참석 ▷순천지구연수회: 3월16일 / 저전동성당 / 500여 명 참석 ▷나주지구연수회: 4월06일 / 나주순교자기념성당 / 50여 명 참석 ▷북부지구연수회: 4월20일 / 문홍동성당 / 170여 명 참석 ▷서남부지구연수회: 4월27일 / 해남성당 / 50여 명 참석

지구별 체육대회 개최

각 지구별로 소속 본당의 사제와 수도자, 사목협의회 임원과 제 단체 임원이 함께 모여서 족구, 단체줄넘기, 보호막 피구, 배구, 이어달리기 경기를 펼쳐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었다.

▷ 서부지구 한마음체육대회: 4월27일 / 상무시민공원 / 1,100여 명 참석
▷ 광산지구 체육대회: 4월27일 / 광산정보고등학교 / 350여 명 참석



▲ 위: 서부지구 체육대회, 아래 : 광산지구 체육대회

〈광주평협 단체소식〉

간호사회 피정

가톨릭간호사회(회장 이숙자, 담당사제 박상선 신부)는 3월 1일 까리따스수녀원에서 64명



▲ 연수회 후 김희중 주교와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피정을 가졌다.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주제로 이숙희 발비나 수녀의 특강이 있었다.

제1회 전라남도 가톨릭공무원 피정



▲ 최창무 대주교 집전의 미사봉헌

도청향주삼녀회(회장 이기환, 담당사제 김민수 신부)는 3월 8일 목포가톨릭대학교에서 ‘제1회 전라남도 가톨릭 공무원 피정’을 개최하였다. 이날 최창무 대주교를 비롯한 귀빈들과 전라남도청 및 22개 시·군 신자 공무원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담당사제인 목포가톨릭대 총장 김민수 신부의 특강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듣고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며 공직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한국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피정 광주개최



▲ 정기총회 미사 봉헌

광주가톨릭의사회(회장 문덕진, 담당사제 박상선)는 3월 8~9일 남평 글라렛선교수도회 영성의 집에서 한국가톨릭의사협의회 총회와 피정을 이곳 광주에서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각 교구의 회장단과 회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성옥 수녀님의 ‘예수의 길에 들어선 나’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또한 광주대교구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만남의 자리에서 서로간의 우정을 다졌다.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마음 대축제 개최



▲ 한마음 대축제 공연

광주가톨릭국악인회(회장 선영숙, 담당사제 한덕수 신부)는 4월 19일 광주 염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불교와 천주교가 만나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였다. 범쾌, 바라춤, 부채춤, 창, 합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서로 다른 종교 안에서도 하나 되는 마음으로 자비와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유치기원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자선행사로 치러졌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운영위원, 상임위원 1일 피정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상근, 담당사제 유장훈 몬시뇰)는 4월 12일 가톨릭센타 3층에서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들이 모여 1일 피정을 가졌다.

담당사제인 유장훈 몬시뇰의 ‘평신도사도직과 한국 천주교회 사목지침서를 중심으로 한 사목평의회’ 강의를 듣고 새로운 임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 운영위원, 상임위원 1일 피정 후 기념촬영

<전주평협 단체소식>

빈첸시오 176주년, 교구도입 41주년 기념 영성강의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전주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지난 4월 20일 인후동 성당에서 빈첸시오 176주년과 교구 도입 41주년 기념하는 영성강의와 미사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을 통하여 “어려운 이들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돋는 빈첸시안들이 바로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들의 마음으로 느끼며, 성령의 힘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격려했다.

전주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제2단계 교육

전주교구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단장 강상근, 담당사제 김진룡 신부)는 제17기 2단계 교육이 천호성지피정의집에서 있었다.

이번 2단계 교육은 인후동 본당 박찬길 주임 신부의 ‘레지오 사도직’, 김영대 한국 중재자의 모후 세나뚜스 전 단장의 ‘냉담 대책과 방안’, 전주 가톨릭신학원 교수 이정석 신부의 ‘성서와 신앙생활’, 전주 가톨릭신학원 교수 공현성 신부의 ‘레지오 마리애와 그리스도 신비체’, 천호성지 피정의집 관장 김영수 신부의 ‘레지오 단원의 영성’, 교구 사무처장 겸 문정성당 주임 윤양호 신부의 ‘어두운 밤’, 김진룡 담당사제의 ‘성서와 성모마리아’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한국평협 회원 단체 소식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새 회장에 김지영 이냐시오 씨 선임



▲ 신임 김지영 회장

가톨릭언론인협의회(회장 김지영)는 3월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김지영 이냐시오 언론중재위원(전 경향신문 편집인)

을 선출하고 새 회칙을 인준했다. 또 감사에 최정기 베드로(KBS교우회장) 현 감사와 이창

근 요셉 광운대교수를 각각 선출하고 신임 사무국장에는 경향신문의 김병각 제작국 부장을 선출했다. 가톨릭 언론인협의회는 앞으로 관련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날 사무처장직을 신설하고 강무성 디모테오(경향신문), 정광호 마르코(마포 케이블TV), 김규호 라파엘(KBS), 김범준 마르첼리노(중앙일보), 김건주 사도요한(서울신문) 등 5명을 사무처장으로 선임, 회장과 사무국장을 도와 분야별 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언론인산악회 29차 30차 등반

가톨릭언론인 울뜨레이 회합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전국의 성지를 찾아 순례하고 성지 인근의 산을 등반해오고 있는 가톨릭 언론인산악회는 3월의 29차 행사로 청계산 기슭의 하우현 성당을 순례하고 청계산을 올랐다. 또 4월의 30차 행사 때는 늘 출입하면서도 막상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던 명동대성당에 대해 새삼 그 구조의 구석구석과 역사를 새삼 알아보고 지하성당의 미사에 참례했다. 이날 순례에서는 이재수 명동대성당 사목협의회 부회장께서 상세하고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다. 회원들은 다시 인근의 남산에 올라 산책과 함께 점심을 나누어 먹으면서 주말을 즐겼다.

매스컴 울뜨레이이는 4월부터 그 명칭을 가톨릭언론인 울뜨레이로 바꾸고 혜영엽 마티아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신부를 담당사제로 하여, 월 1회의 회합장소도 종전의 중림동 가톨릭 출판사에서 명동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장실로 바꾸었다.

한국가톨릭경제인회

제16대 최철수(스테파노) 회장 취임



가톨릭경제인회(회장 최철수)는 지난 3월 15일(토)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16대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회장은

▲ 신임 최철수 회장 최철수 (주)코리아인스트루먼트 회장으로 제 14회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을 수상하였고, 초창기부터 경제인회 임원으로 봉사하였다.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기업경영과 복음실천이라는 두 목표 아래 경제인회의 미래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6대 회장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께 봉사할 회장단과 운영위원 선임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회원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영지원분과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위원회는 회칙 18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특별위원회로 세무, 법률, 노사, 경영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회원들의 사업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를 하려는 것이다.

회장선출이 늦어진 데 따라 열리지 못한 회장단회의와 고문자문위원 간담회가 지난 4월 7일과 14일에 각각 개최되었고, 18일에는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장단 회의에서는 회보 '샘물' 발간을 지원하는 등 경제인회 사업 전반을 적극 지원하자는 결의를 하였고 고문자문위원 간담회에서도 회비를 자체적으로

인상하는 등 새로운 각으로 경제인회 활동을 측면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톨릭경제인회의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임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모두를 변경 없이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전임 회장 재임 시부터 전개해온 회원배가 운동도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소식지 발행을 재개하여 경제인회 사업과 활동 내용을 신속히 모든 회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며, 사무처의 사무시스템과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전면 개체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첫 신앙세미나는 최기섭(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신부의 강의로 5월 16일(금) 오전 7시 30분에 로얄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2008년 정기 이사회



▲ 2008 정기이사회 회의장면

한국가
톨릭 나
사업연합
회 (회장
채규태)
의 '2008
년 정기
이사회'가 회장 채규태 교수를 비롯한 연합회
이사진들이 모인 가운데 2008년 4월 18일 오
전 10시 서울 합정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

되었다.

‘2008년 정기 이사회’는 개회사, 개회기도, 회장인사, 경과보고, 2008년도 사업진행 계획, 장기근속자 격려 보상 내규 보안, 해외지원, 기타, 폐회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해외협력 사업으로 중국 연길(부산 분도회) 1,000만원, 중국 사천성(외방선교회)에 2,000만원, 아프리카 수단(살레시오회) 3,000만원, 인도메딕(말씀의 선교 수도회) 2,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이 집행된다.

또 사회복지 위원장을 지내신 고(故) 지학순 주교님의 ‘지학순 정의평화상 기금’에 이번 2008년에도 200만원을 지원을 승인하였다.



▲ 정기총회에 참석한 사제단과 각 교구 이사회장의 기념촬영

뜻을 전했다.

제2부 미사는 대구대교구 사회복지국장 장효원 요셉 신부, 대구대교구 계산동주교좌본당 이재수 시몬 신부, 제1대리구장 꽈길우 베드로 신부, 한국이사회 담당사제 김준석 멜키올 신부 공동집전으로 거행됐다.

김준석 멜키올 신부는 강론에서 “17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빙천시오 영성의 자긍심을 갖고 끊임없는 성찰과 쇄신을 통하여 거듭 나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당부했다.

성 빙천시오 아 바오로 한국이사회

제26차 정기총회

성 빙천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회장 정해정)는 지난 3월 15일 각 교구 회장단과 21세기를 짚어질 청년위원회, 담당사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정기총회를 열렸다.

정해정 회장은 빙천시안의 성소는 나눔이라고 역설하면서, 회원 간의 일치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친교가 더욱 돋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년간 한국이사회를 이끌어 온 정은화 다미아노 회장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공로패를 증정했고, 정 전회장은 “한국이사회를 이끌어온 지난 3년 간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이었고, 일선 빙천시안으로 돌아가서 후배들에게 좋은 표본을 보이겠다”고 감사의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전국총회, 제26차 연수회 개최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회장 권경수)는 지난 4월 16~18일까지 충북 배론 성지에서 제34차 정기총회 및 제26차 연수회를 가졌다.



▲ 정기총회와 제26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9개 교구 여성연합회 임원들

'평화를 일구는 여성-여성의 존엄'을 주제로 열린 본 총회에서 오덕주 아·태지역 회장과 권경수 회장은 '아·태지역 여성의 존엄에 대한 도전', '생명의 존엄에 관하여'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총회를 겸한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 9개 교구 여성연합회 임원들은 ▲새 생명윤리개정법안 반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 강화 ▲ 돌봄의 운동 전개 등 반생명적 문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하고 생명수호운동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결의안과 관련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성교육 및 생명교육도 전문성 있는 단체와 연대해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미혼모 시

설과 전문직 여성들을 위한 탁아소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또한 오는 12월 첫째 주 생명주간에는 생명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생명수호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정

한홍순 회장 로마 회의 참석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홍순 회장은 지난 4월 27일~5월 4일까지 이태리 로마에서 열린 가톨릭액션 국제포럼(IFCA)에 참석했다.

<교황님의 가르침>

다음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2008년 5월 4일 부활 제7주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하신 삼종기도 훈화말씀이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이탈리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그리스도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사도행전에서 부활 이후 40일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신앙의 신비입니다(사도1, 3-11 참조). 그래서 바티칸과 세계 몇 나라에서는 이미 지난 목요일에 이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승천 이후 첫 제자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가 예수님의 어머니 주위에 모여 예수님께서 보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사도 1, 14 참조). 성모 성월, 오월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도 이러한 체험을 다시 하면서 마리아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계심을 더욱 강렬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광장은 활짝 열린 하늘 아래 신자들이 가득 들어 서 있어 마치 그 옛날

“위층 방”과도 같습니다. 여기 모인 신자들은 거의 모두 이탈리아 가톨릭 액션 회원들인데, 이 분들에게는 조금 뒤 마리아의 기도인 부활 삼종기도를 바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작별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것”, 곧 당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하느님께 다시 데려가시려고, 그리고 철학자나 현자처럼 이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기 양을 우리로 데려가려는 목자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몸소 천상 모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출발”을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를 위해 맞이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 하늘 나라에서 내려 오셨고 모든 일에서 자신을 인간처럼 되게 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수모를 당하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심연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 우리를 위해 하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필리 2, 9) 충만한 영광을 그분께 되돌려 주셨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인간과 더불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계시고, 인간이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이것은 이제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님께 근거를 둔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닻과 같아, 안전하고 견고합니다.”(히브 6, 19) 이것은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 하늘 나라를 파고 들어 가는 그러한 닻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것보다, 곧 자신의 삶을 위해 굳건히 닻을 내리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금 마리아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뜻이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첫 제자들처럼 마리아님을 바라 보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실재로 되돌아 가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드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지 말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간청하라고 권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위로부터 태어난”, 곧 하느님의 영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요한 3, 3-5 참조).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충만한 기쁨 속에 마리아님께 의탁합시다.